제주, **생명존중도시로** 나아간다 (5) 일본 와카야마현의 자살대책

"아무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를 위해"

"자살대책은 살아가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으로서, 모든 사람이 소중한 개인으로 존중받으며 삶을 촉진하는 환경의 정비가 이뤄지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일본이 2006년 제정한 '자살대책기본법(이하 기본법)'에 제시된 기본이념이다. 기본법은 자살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사회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아무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연간 3만명을 웃돌던 일본의 자살자 수는 법 제정 이후 현재 2만명대 초반으로 감소했다.

▶**자살대책, 지역의 역할을 묻다**=일본은 일찍이 자살 예방에 있어서 '지역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살은 지역과 성별, 연령, 특성마다 다른 양상을 띠었기 때문이다. 2016년 기본법 개정을 통해 각 도도부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대책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했다.

일본 간사이 남부에 위치한 인구 86만명의 와카야마현도 이에 따라 자살대책을 마련했다. 와카야마현의 2001년 자살자 수는 300명을 넘어섰고, 같은 해 10만명 당 자살자 수가 29.9명에 이르는 등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와카야마현의 자살률은 17.2명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행정은 먼저 자살예방을 위해 활동해 온 민간단체들과 전문기관들을 잇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007년 12월 '와카야마현 자살대책 연락협의회'를 설치하고 의료·보건·복지·교육·법률·노동·민간기관을 잇는 하나의 연결망을 형성했다. 2009년 9월, 현정신보건복지센터 산하 '와카야마현 자살대책정보센터(현 자살대책추진센터)'를 개설했으며, 현재까지도 실태조사와 상담, 지원창구 안내, 게이트키퍼 양성, 자살유가족 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복합 위기의 결과**=대부분의 자살은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과 배경을 갖는다.

하자마 리카 와카야마현 마음의건강추진과 주임이 지난 7월 8일 와카야마현청의 자살대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지역의 역할' 강조하며 2016년 지역대책 수립 의무화
의료·복지·교육·노동·법률·민간 촘촘한 지원망 구축
"중첩된 위기 막고 삶 전반 지원"… 아동·청년 새 과제

하자마 리카 와카야마현 마음의 건강추진과 주임은 "개인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 4개가 중첩되는 과정에서 자살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조사가 있다"며 "여러 복합 위기가 생기기 전, 생애 초기부터 개입해서 자살을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관점에서 와카야마현이 내놓은 것이 '삶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다.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상담을 통해 위기에 놓인 개인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한다.

동기가 다양한 만큼 지원창구도 세분화됐다. 와카야마현 정신보건복지센터 홈페이지에는 100곳이 넘는 상담창구의 연락처 및 채팅 링크가 안내됐다. 이용 대상도 각각 어린이, 청년, 여성, 노인, 성소수자, 신체·정신장애, 경제문제, 외국인, 범죄피해, 중독 등 구체적이다.

이와타니 준 와카야마현 정신보건복지센터 소장은 "자살의 원인은 보통 종합적이다. 아동·청소년기 때부터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성인이 되어 발현되거나, 성인 시기에 경제적 피해, 직장 내 문제 등을 함께 겪는 경우가 많다"며 "한 가지 문제만 해소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대해 총체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과제**=이러한 노력 덕분에 자살자는 감소했으나 새로운 과제가 떠올랐다. 전국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동·청소년 자살자 수는 2023년 513명, 2024년 529명, 2025년 538명 등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은 2023년 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아동가정청'을 출범시키고 관계 부서들이 참여하는 '아동 자살대책 긴급강화 플랜'을 마련했다. 2025년에는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강조한 '아동 자살대책 추진 패키지'를 발표했다.

와카야마현도 아동·청소년층을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상담창구를 운영, 자살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젊은 여성 자살자 중 40% 이상이 자살시도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와카야마현은 병원으로부터 자살시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상담을 연계한다. 보건소에 인적 정보를 전달한 뒤 시도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보호·관리한다.

하자마 주임은 "아동기 때부터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 상담창구가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며 "자살시도는 삶의 최후의 통첩이다. 자살시도자는 가장 위험이 높은 대상인만큼 보호와 재시도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박소정·양유리·강희만기자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 1577-0199,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학교 전기요금 증가율 전국 최고
2022년 4213만원→ 2025년 5982만원 42% 폭증

제주지역 초·중·고 학교당 전기요금 증가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특수학교가 부담하는 학교당 전기요금은 2022년 4778만원에서 2025년 6183만원으로 3년 만에 1405만원(29.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3년 한 해에만 940만원이 올라 3년 총증가분의 66.9%를 차지했고 2024년과 2025년은 각각 4.0%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기준 학교당 요금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 8400만원, 가장 낮은 곳은 전북으로 4584만원이며 제주는 5982만원으로 10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3년간 증가율은 제주가 2022년 4213만원에서 1769만원이 늘어나면서 42.0%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어 부산 37.5%, 경남 33.4% 순이며 가장 낮은 인천은 21.1%로 2023년 이후 시·교육청이 높은 전기요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요금의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노후 냉·냉반기 비율은 제주지역의 경우 총 8938대 중 2022년 1002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6년 7월 말 기준 144대에 불과해 세종(125대, 1.6%)에 이어 3.2%로 가장 낮았다. 위영석기자

교육공무직 근무경력 100% 인정
제주도교육청 21일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제주지역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직군 구분 없이 근무경력이 100% 인정되고, 학습휴가를 포함한 각종 휴가도 늘어난다.

제주도교육청은 21일 교육청 본관 상황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노조)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는 2024년 9월 노조가 제출한 417개 요구안을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부터 약 1년 10개월간 교섭을 이어왔다. 이달 16일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총 97회의 교섭이 진행됐다.

최종 협약에는 593개 항목에 대한 노사간 합의 내용이 담겼다. 주요 사항은 근무경력 인정 확대와 휴가·모성보호 강화, 근로조건 개선, 산업재해 근로자 지원 등이다.

새로운 단체협약에 따르면 근무경력은 직군 구분 없이 100% 인정된다. 이전에는 동일 직군 100%, 타 직군 50%였던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 것이다. 타 시·도교육청 근무 경력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협약 체결 이후 새로 승인되는 질병휴직은 최초 1년이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학습휴가는 기존 연 4일에서 7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다. 장기재직휴가도 신설·확대된다. '5년 이상~10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3일이 새롭게 주어지고, '10년 이상', '20년 이상' 근로자의 장기재직휴가는 각각 5일에서 7일,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육아시간 사용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5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방학 중 비근무 직종에는 개학준비일 5일이 새로 부여된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봉 김해김씨좌정승공파 입도조 시향제 축

회 장 남식

입도조(좌정승 만희공) 시향제
○ 일 시 : 2026. 10. 4.(일) 11:00
○ 장 소 : 입도조 묘역 (애월읍 곽지리 788-1)

입도 7세(용지조) 시향제 — 10월 4일(일) 09시 염통악(제주시 연동 산80)
입도 4세(봉조) 시향제 — 11월 1일(일) 12시 알바마기오름(조천읍 선흘리 677-1)
입도 6세(계찬조) 시향제 — 11월 1일(일) 10시 금봉사(구좌읍 하도리 1012)

직전회장 동주 / 상임부회장 광필 / 인방회장 수형 / 충방회장 상훈 / 의방회장 상영 / 필방회장 순건 / 예방회장 근형 / 안방회장 창길 / 신방회장 성용 / 지방회장 용민 / 용규회장 수철 / 용호회장 경철 / 후찬회장 현수 / 검 회장 택종 / 청년회장 형석 / 부녀회장 홍춘자

□ 고 문 동균, 대옥, 호선, 순현, 원호, 동권, 영중, 화종, 광수, 호성, 동규, 상식, 희상, 공호, 방철, 창욱
□ 회 장 남식 □ 직전회장 동주 □ 상임부회장 광필 □ 감사 용국, 병식, 창길 □ 종무위원장 광필
□ 부 회 장 택남, 창식, 양택, 수형, 용구, 태문, 애숙, 정신, 승찬, 태규, 병수, 익선, 순건, 상순, 근형, 철용, 태수, 승종, 상훈, 우철, 동전, 성범, 창택, 필수, 성용, 용민, 현민, 광민, 태익, 성도, 수철, 상돈, 경철, 택종, 상현, 정준, 창근, 호준, 형찬, 현수, 황국, 승업, 형석, 홍춘자
□ 자 문 위 원 용범, 용찬, 성배, 동윤, 경주, 원일, 태부, 동일, 대은, 치중, 병두, 성준, 항근, 영종, 덕일, 태엽, 동규, 용석, 성훈, 승용, 석용, 두옥, 승택, 성혁, 완욱, 재남, 성율, 창섭, 동백, 경만, 항효, 흥섭, 기범, 창호, 순선, 영식, 광철, 호선, 중식, 창령, 충현, 태건, 창식, 경칠, 석종, 순영
□ 종 무 위 원 승찬, 남용, 영두, 옥만, 평집, 제희, 춘택, 태진
□ 이 사 경헌, 태민, 영진, 성보, 승삼, 창근, 동의, 양윤, 세홍, 인철, 경필, 경표, 양범, 충희, 시중, 용식, 병수, 홍근, 승훈, 영헌, 경탁, 성덕, 원남, 종필, 무근, 익수, 홍균, 경훈, 용규, 성철, 용철, 흥철, 성보, 호윤, 대경, 동영, 태석, 희찬, 영철, 상용, 영길, 충현, 평집, 제옥, 용구, 동진, 세훈, 용우, 홍배, 종범, 경호, 유현, 영택, 택진, 수훈, 변명효
□ 지회회장 상식, 필수, 상현, 성범

사무처: 사무처장 상영 / 기획이사 영도 / 총무이사 영관 / 재무이사 광민 / 조직이사 창효 / 대외협력이사 동욱 / 홍보이사 영희 / 교육이사 종익 / 사업이사 영환 / 연구이사 창현 / 봉사이사 성화
문의 : 총무이사 영관 010-6475-8718

김해김씨좌정승공파종친회 회 장 김 남 식